

월/요/광/장



고영진

추진시대 제나라의 유명한 재상인 관중이 썼다고 하는 ‘관자’라는 책이 있다. 이 책에서는 예의염치(禮義廉恥)를 나라를 지탱해주는 네 개의 굵은 줄, 즉 사유(四維)라 하여 이것이 없으면 나라가 멸망하고 그 가운데 두 개만 없어도 나라가 위태로워진다고 하였다.

예의염치란 예에 맞게 행하고 의로워야 하며 청렴결백해야하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학문적 능력이 뛰어나도 이 네 가지 덕목이 없으면 진정된 선비로 대접받지 못하였다. 이는 국가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관료들도 마찬가지였다. 예의염치에 벗어난 인물이 관직에 임명되면 삼사로부터 취소하라는 상소가 별때같이 올라와 결국은 임명이 무산되는 기사가 ‘조선왕조실록’에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조선시대 지성사가 전공인 필자가 좋아하는 인물 중의 한 사람이 윤선거이다. 그의 집안은 충청도 논산지역에 재직적 기반을 가진 유력 사족가문이었다. 지금도

논산시 노성면에 가면 종부가 지기고 있는 아름답게 잘 보존된 종가집이 있다. 윤선거의 부친인 윤희은 성헌의 문인이자 사위로 병자호란 때 칙화를 강력히 주장하다 전쟁이 끝난 뒤 영등포로 귀양가

지나지 않아 강화도는 청군의 공격으로 함락되고 그날 권순장과 김익겸은 약속대로 남문에서 자결하였다. 또한, 부인인 공주 이씨와 숙부인 윤선도 스스로 자결하였다. 그의 ‘연보’에는 부인의 순절 사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윤선거 자신은 목숨을 끊지 못하고 허물한 옷으로 바꿔 입고 불림대군의 명령으로 남한산성에 사절로 가는 진원군을 따라 강화도를 탈출하였다. 명분은 남한산성에 있는 병든 부친을 만나보

얼마 뒤 명성과 신망이 점점 높아져 조정에서는 관직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는 모두 사양하고 죽을 때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강화도 함락 당시 당당하게 죽지 못하고 지금까지 구차하게 사는 것이 한스럽고 국가에 죽을죄를 지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사실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윤선거는 반드시 죽을 이유가 없었는지 모른다. 당시 국가를 책임질 위치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몇몇 개인끼리 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조선시대 선비들은 왜 이 문제에 그렇게 집착했을까. 그것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의 덕목과 관련되기 때문이었다. 지도층이 술선수법을 보이지 않을 때 그 사회가 어떻게 되어 가는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에 더 엄격했던 것이다.

오늘도 광주시의 의원들은 밥그릇 싸움에 여념이 없다. 광주시장과 국회의원들 도기싸움에 여념이 없다. 그 덕분인지 지역은 광범이 들어간다. 이들이 예의염치 가운데 부끄러움 하나만이라도 가지고 있더라도, 이러한 모습들을 보는 필자의 마음이 이렇게 참담하지는 않을 것이다. <광주대 교수>

부끄러움 모르는 광주의 지도층들

기도 했으며 큰아들인 윤증은 소론의 영수였다. 1610년 태어난 윤선거는 생원시와 진사시에 모두 합격하고 성균관에 들어가 수학했는데 이미 이때부터 소장 적화파의 선봉장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고 족했다는 것이었지만 당시 선비라면 용납될 수 없는 구차하기 그지없는 변명이었다. 이 점을 그 자신이 더 잘 알았는지 이후 윤선거는 강화도에서의 자신의 행동을 평생 부끄러워하며 과거를 보거나 관직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향리에 묻혀 학문 연구와 저술, 제자 양성에만 전념하였다.

시설

광주상의 파행 언제까지 갈 것인가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경제단체인 광주상공회의소가 두 달 넘게 표류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광주상의는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제 19대 회장 선거에서 불법위임과 대리투표 등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지면서 파행을 겪고 있다.

그동안 광주상의는 제 역할을 못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역상공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할 상의회장사의 사유단체화되다시피 해 상공인 간의 반목과 갈등만 키워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불합리한 정관과 투명하지 못한 운영 등으로 회원사로부터 불신을 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 19대 회장선거의 부정과 잡음도 이러한 내부모순이 결국 끓어 터진 것이다.

당시 마형렬 남양건설 회장이 이원태 금호산업 대표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으나 일부 회원사가 부정선거를 내세워 선거운료 소송과 함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결국, 지난 5월 3일 대수도권론 등 각종 약재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럴 때일수록 지역상의는 책임 있는 목소리와 정책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것이 상의의 존재 이유이다.

그러고 이번 파행의 단초를 제공한 당사자들도 상의의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파행이 길어질수록 그에 따른 책임과 비난은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리라.

북한 ‘벼랑끝 전술’ 버리고 협상에 나서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북한 미사일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다. 안보리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일본 및 중국이 제시한 결의안 초안의 내용을 조정한 결의안을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한 목소리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자칫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북한은 무엇보다 자신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유엔 결의안을 무시하고 추가 도발을 강행하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도 지지를 받기 어렵게 된다.

기고



김경일

지난해 10월, 2002년 KT사장이 광주 시민들에게 공문으로 약속한 송신탑 철수계획이 백지화 되었다. KT는 ‘무등산 KT통신시설 착수 계획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군 통신망이 국방부로 환원되지 않아 통신시설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녹색연합의 보고에 의하면 무등산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하여 심각한 정도로 인위적인 훼손이 가중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KT의 제2중계소를 비롯하여 여러 개의 송신탑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전체적인 백두대간 회복운동과 맞닿아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독자마당

중·고생 등 청소년 흡연을 증증, 정부 대책 필요

중·고등학교의 시험기간 때 일부 학생들이 도서관 휴게실에서 교복을 입고 버섯이 흡연을 하는 모습을 봤다. 청소년들의 흡연은 최근 10여년간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 남학생들은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부터 흡연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40% 이상이 담배를 피운다고 한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국에서는 지난 1996년 8월 담배를 마약으로 공식 선언하고 지난 1995년에는 담배광고 규제, 담배자판기 판매금지, 담배회사들의 청소년 금연 교육비 1억5천만달러 출연등의 내용을 담은 담배규제 방안을 내놓은바 있다.

무등산 장불재를 시민의 품으로

다”고 했다. 이는 KT가 2002년 5월에 무등산 장불재에 있는 제2중계소를 2005년까지 철수하기로 약속한 것을 스스로 깨버린 것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었다. 이 때문에 무등산 장불재 KT통신시설(무등 2중계소)이 사실상 철수가 불가능해 무등산 생태 복원사업이 차질을 빚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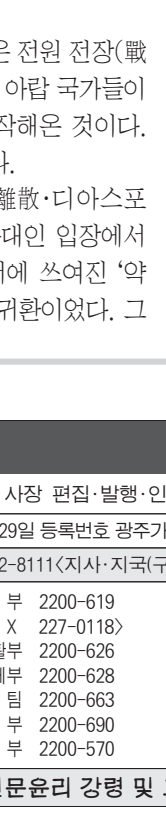
전회선, KBS, MBC, KBC TV 및 라디오 중계시설이 들어있으며 93년 10월에는 현제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통신 무등제2중계소가 철탑과 건물충축이 이루어졌다.

암체 운전자 직접 교통지도 시켰으면, 대형사고 부르는 고속도로 무단횡단 '아찔', 좋은 공연 보려면 관람객 매너 먼저 갖추자

無等鼓

“이스라엘은 자유, 정의, 평화를 기초로 한다...종교, 인종, 성의 구별 없이 모든 거주자들에게 완전히 평등한 사회적 정치적 제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나 이 땅을 무덤으로 꾸려서 팔레스타인 사람에게는 제약의 시작이었다. 이후 중동은 60년 가까이 '세계의 화약고'가 되었다.



현장으로 변해갔다. 그 뿐인가. 중동전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의 상징으로 다가왔다. 73년 벌어진 제4차 중동전은 곧바로 제4차 오일 쇼크로 이어졌다. 이스라엘의 아랍을 격어던 유대인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건국은 성서에 쓰여진 '약속의 땅'으로의 당연한 귀환이었다. 그

미관해치는 전봇대 광고물... 공공 게시판이 대안이다

시내 전봇대에는 얼마나 많은 광고지가 붙어있을까. 최근 길을 걷다가 우연히 한 전봇대에 크고 작은 광고지가 다닥 다닥 붙어 있어 세어봤더니 15개에 달했다.

그나마 요즘 같은 장마철엔 비에 젖거나 찢겨져 나간 종이들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광고물들이 더 많은 상황이다. 깨끗한 전봇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 채택된 원고는 고로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Table with 2 columns: 광주시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for subscription, advertising, and circulation.